

3D프린팅 패션 디자이너부터 드론 공연 기획자까지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니즈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기도 하고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3D프린팅, 드론 등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기들이 출현하면서 직업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콘텐츠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때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시스템에 파열을 일으키는 혁신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해외에서 먼저 활성화된,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살펴본다.

글 강동식 객원기자(dongsik@techm.kr)

3D프린팅 패션 디자이너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술중에 하나다. 3D프린팅은 설계도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플라스틱 액체 등의 원료로 입체적 물질을 만드는 새로운 프린팅 기술이다. 3D프린팅은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복잡하고 거대한 생산 설비 없이도 손쉽게 생산과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과 창작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창의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분야의 3D프린팅 적용이 주목받고 있다.

3D프린팅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대표주자는 네덜란드의 아이리스 반 헤르펜이다. 적층 방식의 3D프린터로 만든 헤르펜의 의상은 기존 옷감에 비해 훨씬 적은 제약 속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3D프린팅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헤르펜은 한 인터뷰에서 “3D프린팅이 전통적인 패션 디자인의 한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고 말했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 이후 3D프린팅을 이용한 패션 작품 시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3D프린팅은 기존 패션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3D프린팅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드론 공연 기획자

당초 군사용으로 개발, 진화해온 드론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드론은 기존의 무인기에 비해 조종하기 쉽고 공중의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등 고유의 장점을 앞세워 항공 촬영, 감시, 운송,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이 공연 무대에까지 올라 주목받고 있다.

국제적인 공연단체인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가 제작한 뮤지컬 파라무어에는 드론들이 전등갓으로 변신해 공중에서 춤을 추며 극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또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500대의 드론이 LED 조명을 달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하늘에서 화려한 군무를 펼쳤다. 드론은 올해 미국 슈퍼볼에도 등장했다. 올해 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300개의 드론이 밤하늘에서 춤을 추고 성조기 모양을 연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가 드론을 공연에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드론의 공연 참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드론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참여해 공중에서 군무 등을 보여주는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하려면 드론의 특성을 잘 살려 자연스러운 무대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용하려는 드론 기술을 이해하고 공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특히 드론의

움직임을 구상할 때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뒷받침이 되어야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로봇이 등장하는 무대 공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하늘의 로봇으로 불리는 드론이 등장하는 공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모티콘 번역가

이모티콘 사용은 이제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웃으며 우는 표정의 이모티콘은 서양에서는 너무 웃겨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같은 이모티콘을 보고 매우 비통한 모습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이모티콘이 문화권, 언어, 세대 등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풀이하고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말 영국의 한 번역회사는 이모티콘 번역가를 공개 모집했다고 한다. 이모티콘은 2015년 옥스퍼드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이모티콘 번역가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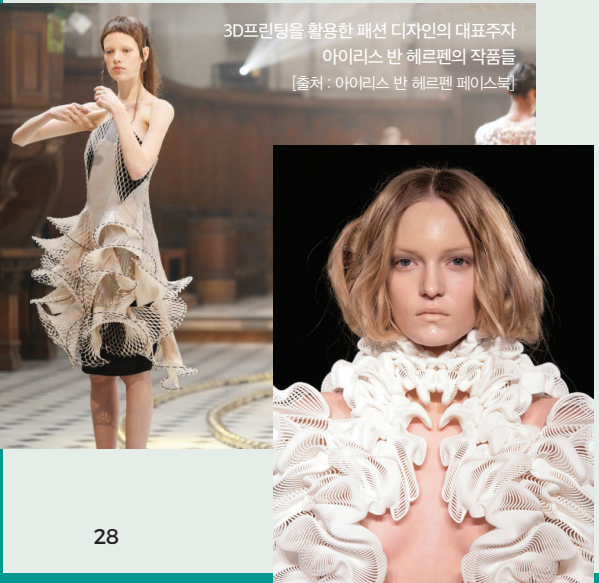
이밖에 여행비디오 창작자, 상품 스토리텔러, 그리고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노스텔지스트 등도 해외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직업으로 꼽힌다.

여행비디오 창작자는 여행지의 풍경과 문화 등을 영상으로 찍어 이를 다른 여행자들이 볼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2013년 설립된 백패커유니버스를 통해 처음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상품에 재미있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토리를 가미해 전달하는 직업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판매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①



태양의 서커스가 제작한 뮤지컬 '파라무어'. 전등갓으로 변신한 드론들이 등장한다.

[출처 : VERITY studios]



3D프린팅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대표주자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작품들 [출처 : 아이리스 반 헤르펜 페이스북]